

TV 드라마 의상에 나타난 스타일에 관한 연구

- 드라마 'Sex & The City'를 중심으로 -

이 지 현* · 정 은 숙**

명지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강사*, 명지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A Study on the Fashion Style in TV Drama

- Focused on 'Sex & The City'-

Ji-Hyoun Lee* · Eun-Sook Chung**

Instructor, Dept. of Fashion Ddesign, Myong-Ji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Myong-Ji University**

(2003. 8. 26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shion style in the drama 'sex and the city's character.

Frist of all, mixing and matching style is one of Carrie's signiture styles, namely her ability to combine haute couture fashion with high street bargains and vintage buys to make ingenious ensambles. There are two main ways to go with this seperates look, the equal look, when tops are put with equally fabulous bottoms, and the unequal look, when fabulous tops go with less fabulous bottoms. Second, nowadays vintage style is one of fashion trend. The 'Sex and the city' has define trends when it comes to jewellery, it is the 'Carrie' nameplate and the Hermes's horseshoe necklaces, especially pearls were a big hit for vintage style. Also it takes a floral pattern and various hat makes a vintage style. Third, Sexual style shows a halter and sleeveless dress with long earing and splendid necklaces. And it takes a leopard pattern. Fourth, romantic style, one of the 'Sex and the city's character's favourite garments is the dress. Its makes romantic moods a delicate with handbags, Manolo Blahnik's and Jimmy Choo's high hill shoes and corsages. The romantic pattern is floral and material is chiffon.

Key words : Mix & Match(믹스 앤 매치), Vintage(빈티지), sexual(성적인), romantic(로맨틱)

I. 서론

케이블TV와 인터넷을 통해 정보의 전파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오늘날의 패션은 대중매체를 매개로 보여지는 스타일이 사회적으로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 TV 드라마에서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주인공들의 역할에 적합한 의상연출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면서 드라마 내에서 배우들의 의상은 대중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드라마의 주인공들도 그들만의 스타일을 연출해 대중들의 모방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스타 마케팅이 일찍부터 자리잡은 국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TV 스타 의상의 모방이 일반화되어왔으며, 국내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프렌즈(Friends)'를 필두로 '엘리의 사랑만들기(Ally Macbeal)', '섹스 앤 더 시티(Sex & The City)'와 같은 미국의 드라마가 케이블TV를 통해 방영되면서 국내 드라마 뿐만 아니라 국외 드라마의 스타 패션 모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 드라마 'Sex & The City'는 드라마와 함께 주인공의 패션 스타일이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뉴욕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Sex & The City'의 주인공 사라 제시카 파커(Sarah Jessica parker)는 드라마의 인기로 그녀가 입고 나오는 옷들이 유행의 잣대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유명 디자이너와 패션 브랜드들이 스타 마케팅으로 선호하는 최고의 스타가 되기도 하였다. 'Sex & The City'는 뉴욕에 살고 있는 갖가지 다른 직업을 가진 4명의 커리어 우먼들이 등장해 그들의 고민과 우정을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풀어어나가는 드라마로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의 성격과 직업을 보여주는 패션은 드라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솔직하고 대담한 성 이야기도 관심거리지만 다섯 번째 주인공이라고 불리는 개성 넘치는 패션 스타일로 인하여 'Sex & The City'의 인기는 시즌 1에서 현재 시즌 6까지 계속되고 있다. 패션 관계자들은 유행에 뒤지지 않기 위해 이 드라마를 시청하고 수많은 패션 잡지들이 그들의 패션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드라마 'Sex & The City'의 인기는 호텔 패키지 상품에서도 보여지는데,

2003년 7월, 국내 리츠 칼튼(Ritz Carlton) 호텔에서는 주말 여성 패키지로 '섹스 앤 더 시티 스타일 따라잡기'라는 부제를 달고 세련된 여성들을 위해 마련된 패키지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학적 측면에 의거하여 이 드라마가 유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 드라마를 통하여 패션 스타일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에 드라마 의상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드라마 의상의 효과와 역할을 알아본다.

둘째, 드라마 'Sex & The City'의 줄거리와 드라마 등장인물의 직업과 성격에 따른 스타일을 살펴본다.

셋째, 드라마 'Sex & The City'를 중심으로 스타일을 연구한다.

넷째, 상위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연구한 4가지의 스타일을 비교, 분석한다.

현재 반영 중인 드라마 'Sex & The City'의 의상 분석을 위해서는 현대복식 관련 문헌보다는 대중적인 시청각 자료와 대중적인 유행을 대표하는 보그(Vogue), 엘르(Elle) 등의 패션 매거진, 매스컴의 보도 자료, 보다 신속한 패션정보를 위한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로 패션 스타일을 살펴보았다.

II. 드라마 의상의 효과와 역할

예전에는 드라마 속에서 유행 스타일이라는 개념을 찾기 힘들었으나 요즘의 드라마는 점점 스타일리쉬해지는 추세이다. 스타 의상의 모방은 TV 드라마 주인공보다는 영화배우나 가수들의 의상에서 먼저 도입되었으나, 정보의 전파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진 최근에는 케이블TV와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매개로 TV 드라마 의상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예전의 드라마 의상은 배우들의 기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탤런트나 배우가 직접 매장을 찾아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만들거나 그들의 개인 코디네이터가 스타일 컨셉을 제시

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방영되는 드라마는 주인공의 성격뿐만 아니라 특정한 직업과 직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졌고, 드라마 역할에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서 적합한 의상연출은 필수적이 되었다. 또한 드라마의 주인공들도 그들만의 스타일을 연출해 대중들의 모방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전문직 여성들의 패셔너블한 의상과 라이프 스타일은 TV 드라마를 통해 대중들에게 대리만족을 주며, 모방 심리를 자극한다.

국내 드라마 '도시 남녀'(1998)는 현대 도시남녀의 일과 사랑, 만남과 이별이라는 내용으로 인기를 모은 것과 동시에 김남주, 김소현, 조민기 등 스타를 탄생시켰는데, 특히 영화와 같은 화면과 뛰어난 영상미뿐만 아니라 드라마 최초로 스타일리스트를 도입해 각 인물들의 성격에 맞는 스타일을 연출했다. 김남주는 이 드라마에서 라디오 작가 역할로 커리어 우먼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세련된 팬츠 수트를 즐겨 입고 나와 당시 스커트 정장이 주류를 이루던 여성복 시장에 심플하고 미니멀한 팬츠 수트로 유행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블랙과 그레이 그리고 베이지 컬러의 모노톤 컬러와 세련된 짧은 헤어스타일이 그녀의 지적인 이미지를 어필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다소 차가워 보이는 느낌을 주는 빨레 안경은 '김남주 안경'이라는 새로운 유행을 낳기도 했다. 그녀는 이 드라마에서부터 유행을 선도하기 시작해서 드라마마다 유행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드라마 '겨울 연가'(2002)의 경우 제작 전부터 배용준의 안경, 머플러 등이 세심한 준비 끝에 마련되었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었으며, 최지우의 단발 헤어 스타일과 액세서리들은 베스트 셀러로 떠올랐다. '야인시대'(2002)는 몇몇 패션소품들로 강한 남성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해 냈으며, 등장인물들은 중후한 더블 브레스트의 정장차림에 중절모와 풍성한 트렌치 코트를 입고 등장해 유행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최근에 방영된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2003)'가 인기를 끌자 동대문 패션볼 점포들이 앞다퉈 이 드라마 의상을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주인공 정은(정다빈)과 경민(김래원)이 입고 나온 드라마 의상인 세로 줄무늬가 있는 트레이닝 팬츠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운동복으로 팔렸는데, 요즘엔 외출복으로 바뀌었다. 특히 컬러도

정은이가 자주 입는 레드와 블루가 특히 인기가 있고, 정은이가 입는 주름 많은 블라우스인 셔링 티셔츠와 카고 팬츠도 인기를 끈다. 남대문 메사에서는 여성 캐주얼 점포 1백 47개 곳 중 30곳이 '정은이 패션'을 취급할 정도이다. 남자 주인공 경민이가 유행시킨 아이템은 아웃커팅 티셔츠와 민소매 티셔츠로 명동 밀리오레에서는 남성 캐주얼 점포의 60~70%에서 '경민이 패션'을 팔고 있다고 한다. 한편 동대문 패션볼 두타는 인터넷볼 두타닷컴(www.doota.com)에서 2003년 7월 31일까지 '옥탑방 고양이처럼 입기'라는 이벤트를 벌인다. 두타에서 구입한 드라마 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을 사이트에 올리면 우수작을 선정해 옷값을 돌려준다.²⁾ 이처럼 드라마 의상이 사회적으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특히, 최근에는 케이블과 인터넷의 대중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세계 각 국으로 드라마가 전파되면서 국내 드라마 의상뿐만 아니라 국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입고 나오는 의상들까지도 국내 대중들에게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뉴욕을 배경으로 개성적인 네 커리어 우먼의 생활을 보여주는 미국 드라마 'Sex & The City'는 2000년 국내에 처음 소개된 이후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뉴욕 스타일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드라마가 유행시킨 패션 아이템은 바게트 빵 모양처럼 생겨 이름 붙여진 '펜디(Fendi)의 바게트 백'〈사진 21〉을 비롯하여 '에르메스(Hermes)의 말발굽 목걸이'〈사진 2〉, 선명한 레드 컬러의 '마놀로 블라니크(Manolo Blahnik)' 수제 하이힐 구두〈사진 3〉 등 많은 상품들이 있다. 드라마의 주인공인 캐리(Carrie) 목걸이는 인터넷 사이트 '다음(www.daum.net)'과 '프리챌(www.freechal.com)' Carrie 숍의 인기 품목이고, 'Hermes의 말발굽 목걸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식간에 품절 되었다. 또한 이 드라마에서 자주 언급되는 '지미 추(Jimmy Choo)'라는 한 구두 브랜드도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³⁾ 이렇듯 드라마에서 눈에 띄는 패션 스타일과 소품은 베스트 셀러로 떠오른다. 그래서 각 패션 업체의 홍보담당들은 유명 드라마에 출연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드라마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눈에 띄는 조연들에게라도 자신 브랜드의 옷을 입히기 위

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제 드라마 의상은 단지 시청자들을 시각적으로 자극하고, 스타만이 입을 수 있는 제한된 패션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드라마 연출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대중의 패션 유행을 주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III. 드라마 'Sex & The City'의 의상 분석

1. 드라마 제작 및 줄거리

드라마 'Sex & The City'는 캔디스 부시넬(Kendis Buscinell)이 '뉴욕 옵저버'지에 연재한 칼럼을 바탕으로 제작되었고, 미국에서는 HBO를 통해 98년 첫 방영된 이후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시즌 6이 제작중이다.

미국 드라마 중의 하나인 'Sex & The City'는 뉴욕 맨하탄을 배경으로 저마다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성(性) 칼럼니스트 캐리(Carrie), 홍보회사 이사 사만나(Samantha), 변호사 미란다(Miranda), 화랑 딜러 샬롯(Charlotte) 등 4명의 미혼 여성이 주인공이다. 성(性) 전문 칼럼니스트인 주인공 Carrie의 칼럼을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Carrie에게 칼럼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주요 대상은 바로 미혼의 여자 친구들로 독신 여성들의 사랑과 취미, 소비 성향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이다. 그러나 드라마 'Sex & The City'가 보여주는 것이 단지 능력 있는 도시인들의 겉모습만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대도시에서 생활하면서도 최대한 자신의 자유와 개성을 보호하고 타인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현대인의 모습이 가장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와중에 느끼는 공허함이나 새로운 고민을 담고 있다. 'Sex & The City'는 단순히 쾌락과 자유만을 외치는 독신 여성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진솔하고 상큼한 에피소드 가운데서 진지한 만남과 진정한 사랑, 합리적인 결혼제도와 사회적 성공에 대한 여성들의 고민을 담고 있어 현대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로 다

가온다. 특히, 그들의 감각있는 패션 스타일은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모방하고 싶은 충동을 자극시켰다.

2. 드라마 등장인물의 직업과 성격에 따른 스타일

1) 캐리 브래드 쇼 역(사라 제시카 파커(Sarah Jessica parker))

자신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칼럼으로 풀어내는 Carrie(사라 제시카 파커)는 자유로운 사고와 생활방



<사진 1> 핫팬츠 차림의 Carrie



<사진 2> 슬리브리스 드레스와 Hermes의 말발굽 목걸이



<사진 3> 구두를 고르는 Carrie의 모습



<사진 4> 단발 웨이브 헤어스 타일과 스모크 튜브 드레스

식을 존중하는 성(性) 칼럼니스트로 드라마에서 가장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한다. 그녀는 주로 짧은 핫팬츠(사진 1), 튜브 스타일의 탑, 노출이 심한 슬리브리스 원피스(사진 2) 등의 과감한 의상에 액세서리를 매치시킨다. 특히, 그녀의 이름 Carrie를 알파벳으로 한 목걸이와 Hermes의 말발굽 목걸이(사진 2), Christian Dior의 사과 마크 목걸이 등으로 다양한 목걸이의 유행을 불러오기도 했다. 또한 <사진 3>에서 처럼 울적할 때마다 항상 구두를 사는 극중 Carrie의 모습은 구두를 더욱 돋보이게 했으며, 항상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디자이너 브랜드 구두 쇼핑백은 보는 이들의 궁금증을 자극했고, 결국 Jimmy Choo와 Manolo Blahnik의 수제 하이힐 구두를 유행시켰다. <사진 4>의 스모크(smock)장식의 테리(terry) 소재 그린 컬러 튜브 원피스에서는 팔에 찬 보라색의 새틴 뱅글(bangle)⁴⁾이 스타일의 포인트이다. Carrie는 매회 파격적인 의상, 패션 소품, 액세서리를 선보여 할리우드의 새로운 패션리더로도 유명한데, 시즌 5에서 그녀는 헤어 스타일리스트 Seaji Norman의 작품으로 유명했던 긴 웨이브 머리를 자르고 단발머리에 웨이브를 준 산뜻한 헤어스타일을 선보였으며, <사진 4>에서처럼 허리선이 없는 드레스와 가슴 아래로 주름이 잡힌 셔츠 등으로 교묘하게 임신한 몸매를 가리는 임신부 코디법도 보여준다.

2) 사만다 존스 역(킴 캐트럴 (Kim Cattrall))

자신의 일을 즐기며 남자와의 관계가 자유분방한 홍보이사 Samantha(킴 캐트럴)는 낮에는 오피스 우먼의 전형적인 수트를 보여주며, 밤에는 파티에 어울리는 부드러운 실크나 저어지 드레스를 즐겨 입는다. 그녀 역시 평범함을 거부하는 패션으로 섹시하고 과감한 스타일을 연출하는데, 팬츠보다는 화려한 컬러나 섹시해 보이는 펜슬 타이트 스커트를 더 선호한다. <사진 5>의 그린 컬러의 재킷은 Thierry Mugler의 제품이고, 화이트 컬러의 하운드 투스(Hounds tooth) 스커트는 Escada의 제품으로 오피스 우먼의 전형적인 수트이지만, 재킷의 컬러가 화려하다. 수트에서도 화려함을 보여주는 Samantha는 <사진 6>에서 핑크 수트에 블랙 버튼으로 포인트를 준 Emanuel Ungaro 수트와 Chanel 화이트 킬트 토드백, Christian



<사진 5> 화려한 컬러의 재킷과 펜슬 스커트 <사진 6> 핑크 수트에 블랙 버튼이 포인트 <사진 7> 홀터넥 원피와 늘어지는 귀고리



<사진 8> 원 숄더 드레스와 독특한 귀고리



<사진 9> 클래식한 셔츠에 매치한 목걸이

Louboutin의 레드 컬러 샌들을 착용했다. <사진 7>의 블랙 홀터넥 드레스로 섹시한 스타일을 연출하며, 어깨를 드러낸 원피스에 길게 늘어지는 귀걸이를 매치시켜 허전함을 줄였다. 매번 바뀌는 화려한 액세서리도 그녀의 개성있는 스타일 연출방법인데, Allen & Sooji제품의 원 숄더 드레스에 실버 컬러의 생선 뼈 모양의 독특한 귀고리를 했으며<사진 8>, Celine의 클래식한 아이보리 셔츠에도 단추를 여러 개 풀어 과

감한 체인 진주 목걸이를 코디했다.<사진 9>

3) 미란다 홉스 역(신시아 닉슨 (Cynthia Nixon))

냉소적이고 지적인 변호사이면서 한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한 Miranda(신시아 닉슨)는 화려하지 않은 수수한 컬러와 편안한 의상을 선호하지만 빨강계 염색한 커트머리에서 알 수 있듯이 개성 있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보여준다. <사진 10>는 Michel Perry의 제품으로 3/4 소매의 보라색 수트로 깔끔한 커리어 우먼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보여주며, <사진 11>에서는 DKNY제품의 팬츠 수트에 Miguel Androver의 블루 스트라이프 셔트를 입은 모던한 스타일에 Louis Vuitton의 대담한 레드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

었다. 또한 <사진12>에서는 단조로운 Tahari의 스커트 수트에 Ultra Ozbek의 반짝이는 플레임 스티치(flame stitch)⁵⁾ 니트를 선택해 액센트를 준다. 파티에서 그녀는 스카프와 액세서리로 세련된 패션감각을 선보이기도 하는데, <사진 13>에서처럼 편안해 보이는 Ellen Tracy의 버건디 컬러의 가디건에 스타일링 포인트로 Echo의 플로럴 프린트 스카프를 착용했다. Miranda의 스타일 특징은 전문직 여성의 특성을 드러내는 Emporio Armani의 지적인 파스텔 톤 수트와 가죽을 트리밍한 다크 브라운 컬러 드레스 등 튀지 않고 깔끔한 미니멀 스타일이 특징이지만, 화려한 컬러나 Versace의 뱀가죽 클러치 백과 같은 독특한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기도 한다.



<사진 10> 커리어 우먼의 스커트 수트



<사진 11> 모던한 컬러의 수트에 레드 가방이 포인트



<사진 12> 단조로운 수트에 탐으로 액센트



<사진 13> 포인트로 플로럴 프린트 스카프를 착용



<사진 14> 단아한 원피스



<사진 15 > Charlotte의 우아한 패션 스타일

4) 샬롯 요크 역(크리스틴 데이비스(Kristin Davis))

친구들 중에서 가장 순진한 로맨티스트로 다른 친구들에 비해 보수적이면서 꿈 같은 사랑에 대한 기대를 간직하고 있는 화랑 딜러 Charlotte(크리스틴 데이비스)은 단아하고 우아한 패션을 선보인다. <사진 14>의 여성스러운 닷트 부니 원피스는 Blumarine 제품으로 Chanel의 클래식한 체인 장식의 네이비 퀼트 숄더 백과 함께 그녀의 단정한 성격을 잘 나타낸다. <사진 15>에서 Charlotte은 뉴욕의 인기 브랜드



<사진 16> 블랙 펜슬 스커트와 진홍빛 양털 재킷



<사진 17> 보우로 액센트를 준 체크 패턴 원피스



<사진 18> 디자인의 믹스 & 매치 스타일



<사진 19> 아이템으로의 믹스 & 매치 스타일

인 Paul&Joe의 트렌치 코트와 핑크색 핸드백과 모자로 귀족적인 스타일을 보여주며, Carrie와 공원에서 담소를 나누는 <사진 16>에서는 진홍빛의 Christian Lacroix의 양털 재킷과 Moschino의 탑, Club Monaco의 펜슬 스커트, Louis Vuitton의 블랙 롱 부츠를 착용해 여성스러움을 표현해주고 있다. <사진 17>에서도 역시 Moschino의 보우로 액센트를 준 체크 패턴 원피스와 Jennifer Shanker Moon 제품인 세계의 다이아몬드 팔찌로 그녀의 스타일을 표현한다. 그녀는 주로 파스텔 톤이나 사랑스러운 캔디 컬러와 팬츠보다는 원피스나 무릎까지 좁아지는 펜슬 스커트 등의 아이템에 모자와 부츠 등의 패션 소품들로 로맨틱한 스타일을 연출하는데, 액세서리 역시 화려하고 대담한 스타일보다는 작고 귀여운 스타일이나 앤티크 스타일을 선호한다.<사진 39> 또한 Prada의 새틴 지갑이나 Louis Vuitton의 흰색 토트 백 같은 최신 백으로 그녀의 스타일을 완성한다.

3. 드라마 'Sex & The City'의 의상에 나타난 유행 스타일

1) 믹스 앤 매치 스타일(Mix & Match style)
'Sex & The City'의 스타일리스트인 Patricia



<사진 20> 아이템으로의 믹스 & 매치 스타일



<사진 21> 아이템으로의 믹스 & 매치 스타일

Field는 Carrie에게 블랙 앤드 화이트로 상징되는 무난한 뉴욕 스타일 대신 개성을 극대화한 믹스 앤드 매치 스타일을 연출했다. Carrie 역의 사라 제시카 파커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옷들을 과감하게 믹스해서 입는 '캐리 룩', 또는 '사라 제시카 파커 룩'으로 다양한 유행을 만들어냈다.⁶⁾ 'Sex & The City'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믹스 앤드 매치 스타일을 선보이는데, 하나는 디자이너 브랜드와 로드 샵이나 빈티

지 스타일을 매치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기 다른 아이템, 컬러, 디자인, 패턴 등을 매치 시켜 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이다. <사진 18>에서 Carrie의 스커트 수트 재킷은 Karl Lagerfeld에 의해 재해석된 Chanel 정통 수트로 주로 남성의 더블 브레스트 신사복이나 예복 것에 사용되는 라펠 칼라의 재킷에 발레리나 스타일의 플리츠 스커트를 매치시켰으며, 순수한 진주 장식의 언더 니트는 흰 가죽장갑과 켈트 직사각형 프레임 핸드백과 함께 같은 컬렉션 제품이다. Givenchy의 테일러드 핀 스트라이프 팬츠와 진이 박힌 대담 진 재킷, 표백 얼룩 패턴의 티셔츠를 코디해서 입은 <사진 19>와 Chanel 로고의 쉬폰 탑과 Just in Time 제품의 화려한 컬러로 염색된 카프리 팬츠와 두건<사진 20>을 함께 코디해서 디자이너 브랜드의 제품과 스트리트 스타일의 빈티지 제품으로 스타일을 연출하는 믹스 앤 매치를 보여준다. Marni의 2002' S/S 컬렉션의 러플 미니 드레스에 발달한 재킷의 <사진 21> 역시도 Carrie의 믹스 앤 매치 스타일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사진 22>에서 그녀는 Givenchy의 스트라이프 스커트와 함께 가슴까지 잘려진 핑크색 옥스퍼드 아래로 살짝 보이는 코튼 소재의 탱크를 세트로 매치 시켰으며, 노출된 허리에는 둘러져 있는 사각 형태의 도트무늬 벨트를

착용했고, Christina Caruso의 독특한 니트 소재의 빈티지 핸드백으로 믹스 앤 매치 하였다. 또한 Carrie의 35번째 생일 파티에서 컬러를 믹스한 <사진 23>의 그녀는 프랑스 디자이너인 Jean Charles de Castelbajac의 라이트 블루 울 코트에 Prada 레드 컬러 실크 저어지 미드리프(midriff)⁷⁾를 입고, 손에는 Prada 블랙 벨벳 헤드밴드와 Fendi 브라운 가죽 로고의 바के트 핸드백을 함께 들었는데, 그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가지 컬러를 무난하게 소화시켰으며, 오히려 독특한 아름다움마저 느껴진다. 이렇듯 Carrie는 이브닝 아이템에서부터 영국풍 뉴스보이 캡까지 다양한 믹스 앤드 매치 스타일을 선보인다<사진 32>.

2) 섹슈얼 스타일(Sexual Style)

밀라노 컬렉션을 중심으로 이번 2003 S/S에는 섹시 무드가 한창 오른 주가를 과시했다. 드라마 'Sex & The City'에서는 섹시함을 강조하기 위해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자주 선보이는데, 특히, 슬리브리스<사진 26>와 홀터넥<사진 7> 등의 디자인이 화려하고 과감한 액세서리와 함께 연출된다. <사진 24>는 Thierry Mugler의 어깨를 노출시킨 드레스이고, <사진 25>에서는 Diane von Furstenberg 제품인 저어지 소재 바이올렛 컬러 드레스의 과감한 노출과 화려한 컬러로 섹시한 스타일을 표현하며, 길게 늘어지는 귀걸이로 노출의 허전함을 즐겼다. 과감하고 섹시한 이브닝 드레스를 완성시키는 것은 매번 바뀌는 화려한 액세서리로 어깨를 드러내는 드레스에는 길게 늘어지는 귀걸이나 과감한 목걸이를 매치시켜 더욱 섹슈얼한 이미지를 전달한다.<사진 26> <사진 27>에서 Samantha는 섹시한 세컨 미니 드레스와 Fendi의 클러치 백을 매고, 터키산 옥으로 만든 화려한 목걸이를 했으며, <사진 28>에서는 Jean Paul Knott의 레드 쉬폰 배드윙 블라우스와 Rene Lezard의 브라운 레오파드(leopard) 프린트 펜슬 스커트에 Kenneth Jay Lane의 다이몬드 별 귀고리, 'Sex & The City'의 스타일리스트인 Patricia Field의 레오파드 프린트의 팔찌를 착용했다. 레오파드 프린트는 섹슈얼 스타일을 연출하는 대표적인 패턴으로 Samantha가 유행시킨 샌들도 Moschino의 레오파드 프린트 샌들이다. 구두



<사진 22>
문양의 믹스 &
매치 스타일



<사진 23> 컬러로의 믹스 & 매치
스타일



<사진 24> 과감히 어깨를 노출한 드레스



<사진 25> 과감한 노출과 컬러의 드레스



<사진 28> 레오파드 스커트와 액세서리



<사진 29> 홀터넥 드레스



<사진 26> 슬리브리스 드레스에 착용한 과감한 목걸이



<사진 27> 세퀸 미니 드레스와 화려한 목걸이



<사진 30> 홀터넥 탑과 펜슬 스커트

나 핸드백 역시 섹시한 스타일로 Moschino나 Iceberg 제품이 많다. 또한 섹시얼한 스타일을 위한 아이템으로 다양한 슬리브리스, 홀터 넥 탑과 드레스와 슬림한 펜슬 스커트를 선보인다. <사진 29>에서 Miranda의 대담한 드레스도 Jean Paul Gaultier의 가죽으로 트림되어진 스크린 프린트 홀터넥 드레스로 여러 개의 킬러풀한 팔찌에 포인트를 주어 섹시얼한 스타일을 보여준다. <사진 30>에서도 Samantha는 저어지 카울 홀터 넥 탑과 Iceberg의 펜슬 슬림 스커트, 강렬한 레드와 블루의 컬러 매치로 섹시얼한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는데, 섹시얼한 스타일의 컬러는 주로 블랙이 많이 보였으며, 화려한 색상으로 레드, 마이 올렛, 터키 블루 등 도 볼 수 있다.

3) 빈티지 스타일(Vintage Style)

드라마 'Sex & The City'에서도 2000년대의 패션 트렌드인 빈티지(Vintage) 스타일⁸⁾이 많이 보여지는데, 플로럴 패턴의 원피스 아이템과 목걸이, 모자, 벨트 등 다양한 패션 소품을 이용한 빈티지 스타일을 선보인다. 특히, 진주장식의 액센트는 시대를 초월하는 아이템으로 현대와 복고의 절묘한 조화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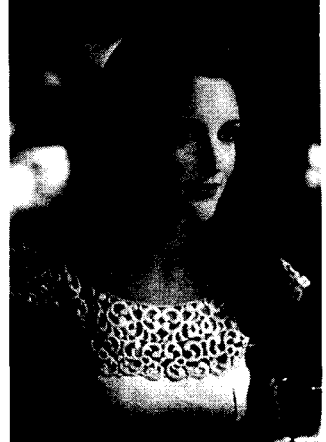
<사진 31> 플로럴 원피스에
체크 빈티지 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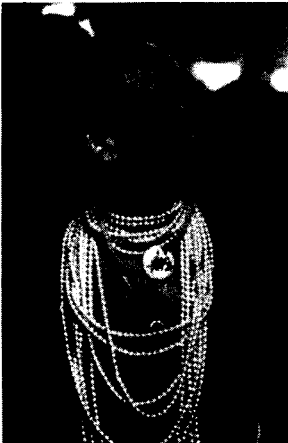
<사진 32> 뉴스보이
모자와 빈티지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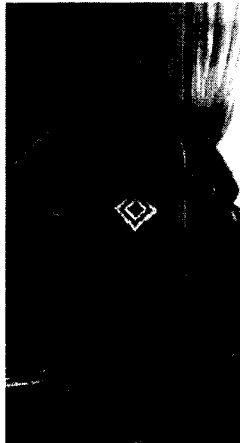
<사진 35> 플라워
패턴 원피스



<사진 36> 60년대 스타일의
레이스가 트림된 빈티지 칵테일
드레스



<사진 33> 플로럴 초커와 진주
목걸이로 빈티지 연출



<사진 34> 복고적인
레인보우 스트라이프의
썬 원피스와 기하학적
다이아몬드 패턴 벨트



<사진 37> 빈티지
스타일의 간호원 케이프

루며 Carrie 룩에 다양하게 연출되어 개성있는 스타일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진 31>은 Carrie가 Charlotte과 함께 다음에 쓸 칼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한 장면인데, 나옴된 캘리코⁹⁾ 홀터넥 원피스에 Nancy Winaric의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체크 문양에 빈티지 풍의 모자를 매치시켰으며, <사진 32>에서는 프랑스의 니트웨어 디자이너 Pierrot의 원피스 수트에 Prada 제품인 린넨 더스터 코트(duster coat)¹⁰⁾를 입고 Christian Dior 빈티지 백과 뉴스보이 모자, Fendi 로고 슬리퍼를 신었다. 그리고

<사진 33>은 캐주얼 차림에 진주 목걸이와 Christina Caruso의 핸드 메이드 플로럴 초커(Choker)¹¹⁾를 함께 매치시켜 빈티지 느낌을 주었는데, 진주 목걸이는 빈티지 스타일에서도 다양한 비즈와 함께 복고적인 이미지를 연출해 준다. <사진 34>에서 Carrie는 70년대 풍의 빈티지 레인보우 스트라이프의 썬 원피스(sundress)에 60년대 말 유행했던 블루와 화이트의 기하학적 다이아몬드 패턴의 벨트를 착용했다. 그리고 빈티지의 대표적인 패턴으로 플로럴을 빼 놓을 수 없는데, Charlotte은 <사진 35>에서 Iceberg의 화이트 빈티지 코튼 플로럴 프린트 원피스에 가죽 보우 벨트와 Gucci 샌들로 빈티지를 선보였으며, <사진

3)에서도 Carrie가 빈티지 플로럴 썬 드레스를 입었다. 또한 Charlotte은 <사진 36>에서 60년대 스타일의 레이스가 트림된 빈티지 카테일 드레스를 입었다. Chloe 제품의 벨벳 부스티에 위에 Moschino의 화이트 셔트를 입고 Prada 자주 스커트를 매치시킨 <사진 37>에서 Carrie는 Patricia Field 제품의 네이비 컬러 올 빈티지 간호원 케이프로 뉴욕의 나이팅게일을 연상케 한다.

4. 로맨틱 스타일(Romantic Style)

올해 세계적인 로맨티시즘 트렌드의 영향도 있지만, Carrie가 선보인 화려한 색상의 프린트와 쉬폰 소재 드레스가 그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Carrie가 매디슨 거리(Madison Avenue)에서 윈도우 쇼핑을 할 때 입은 굵은 리본을 맨 레인보우 메탈릭 컬러로 프린트된 Christian Louboutin Stilettos의 옴파이어 원피스는 로맨틱한 스타일을 보여준다<사진 38>. 또한 로맨틱 스타일에서는 역시 여성스러운 패턴으로 대표되는 플로럴 패턴이 많이 선보인다. 4명의 주인공들 중에서 가장 로맨티스트인 Charlotte은 그녀의 성격을 잘 전달하는 로맨틱한 의상이 주를 이루는데, 부드러운 갈색 머리와 어울리는 앤틱크 귀걸이, 꽃무늬가 수놓아진 여성스러운 드레스<사진 39>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맨틱한 느낌을 주는 플로럴 패턴은 그녀가 자주 선택하는 패턴이기도 하다. <사진 40>은 Carrie가 남자친구 에이단의 새로운 바(bar)를 방문할 때 입은 옷으로 플로럴 패턴인 Prada의 2001년 컬렉션인 블랙 앤 화이트(black & white) 스커트에 흰색의 탑을 매치시키고, Marni 제품의 불가사리가 핸드 프린트 된 된 코트를 덧입었다. 또한 Manolo Blahnik의 백 벨트형 구두를 신었으며, 핑크와 라임색의 Bvlgari 제품의 바케트 백을 들었다. 특히, 드라마 시즌5에서 Carrie의 의상은 레이스나 꽃 장식, 하늘하늘한 시폰 등을 활용한 여성스러운 스타일이 주가 된다. 파티를 위해 그녀가 준비한 의상은 꽃 장식이 화려하게 달린 Chanel 브랜드의 쉬폰 수트로 가슴에 플리츠 장식과 네크라인에 달린 꽃 장식은 더욱 로맨틱한 느낌을 준다.<사진 41> <사진 42>은 Carrie의 책 발간 파티



<사진 38>
멀티컬러로
프린트된 원피스



<사진 39> 여성스러운
플로럴 드레스와 앤틱
귀고리



<사진 40> 불가사리
패턴의 코트와 플로럴
패턴의 스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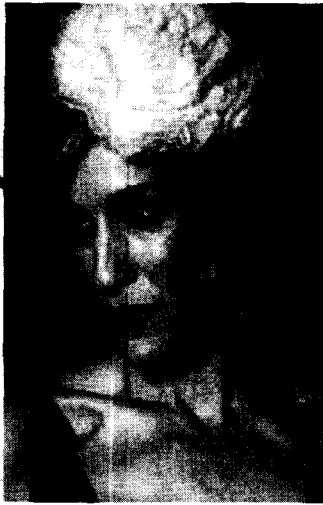


<사진 41> 꽃 장식의
핑크 쉬폰 수트

를 위해 그녀가 선택한 슬립 드레스로 Anna Molinari의 제품이며, 깃털과 레이스의 조화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리고, 로맨틱한 스타일을 위한 소품으로 코사지를 사용하는데, 코사지를 응용하여 머리에 달기도 하고, 허리나 가슴에 부착하기도 하여 다양한 로맨틱한 이미지를 선보인다.



<사진 42> 레이스와
깃털로 매치한
로맨틱한 드레스



<사진 43> 코사지를 이용한
로맨틱 스타일 연출

IV. 결 론

자유로운 생활 방식과 평균 이상의 경제 수준을 갖춘 20-30대 층을 타겟으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패션 및 미디어 관련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다. 뉴욕의 독신 여성들의 눈을 통해 미국 상류층의 사랑 방식과 감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들여다본 'Sex & The City'는 21세기 젊은이들을 매혹시킬 만한 최신 유행코드를 모아놓은 첨단 상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드라마로 사랑와 일, 남녀 성 역할에 대한 개념이 눈에 띄게 변하고 있는 국내에서 적지 않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각자의 직업만큼이나 개성이 강한 그들의 패션은 케이블 TV와 인터넷을 매개로 급속히 유행이 전파되고 있다. 드라마 속 이들의 패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유행 스타일을 연구, 분석하였다.

첫째, 믹스 앤 매치 스타일(Mix & Match style)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믹스 앤드 매치 스타일을 선보이는데, 첫 번째는 고급 디자이너 브랜드와 빈티지 스타일의 매치이고, 두 번째는 소재, 아이템, 패턴, 컬러, 디자인에 따른 개성 있는 믹스 앤 매치이다. 둘째, 섹시함을 강조하는 섹슈얼 스타일(Sexual Style)

에서의 드레스는 주로 슬리브리스나 홀터 넥 스타일을 많이 착용했고, 팬츠보다는 스커트가 더 많았으며, 특히 몸에 피트한 펜슬 스커트를 선호했다. 또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컬러도 과감한데, 블랙과 레드 계통의 컬러가 많이 보여졌으며, 패턴은 애니멀 프린트 중에서 레오파드 프린트가 많았다. 세제, 빈티지 스타일(Vintage Style)에서는 액세서리와 패션 소품을 많이 이용하였는데, 특히 진주장식이 주를 이루었으며, 다양한 모자를 코디하였다. 마지막으로 넷째, 로맨틱 스타일(Romantic Style)에서는 소재로 시폰이 많이 보였으며, 패턴은 플로럴 패턴이고, 아이템은 단연 원피스이다. 드라마 'Sex & The City'에서는 믹스 매치 스타일로 도시의 세련됨을 극대화시켰으며, 여성스러움을 표현하는 섹슈얼 스타일과 로맨틱 스타일, 그리고 2000년대 가장 트렌디한 빈티지 스타일까지 각각 다른 다양한 패션 스타일의 전형을 보여준다.

물론 드라마 의상의 유행은 정착 가능한 트렌드라기보다는 패드¹²⁾에 가깝다고 하는 분석이 있기도 하지만, 드라마 의상이라는 것이 몇몇 대표적인 패션 아이템 제시에 그쳤을 뿐 정착 하나의 스타일을 제시할 만큼 감각적이지 못한 이유에 있기도 하다. 특히 사극이나 시대극에서의 드라마 의상은 유행을 제시하기보다는 고증과 재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실감 중심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드라마는 구체적인 캐릭터의 성격 및 특정한 직업, 직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패션의 트렌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뉴욕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Sex & The City'의 드라마 의상은 여자 주인공 사라 제시카 파커를 내세워 최신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연출해 위에서 살펴본 4가지의 스타일을 세계적으로 유행시켰다.

앞으로의 드라마 의상은 좀더 전문적이고 감각적으로 진보할 것이며, 미디어 역시 더욱 발전할 것이다. 최근의 디지털 방송은 인터넷 등 여타통신과 연결되며 쌍방향 방송이 가능하여 드라마를 보다 등장인물의 의상 항목을 리모컨으로 클릭하면 드라마를 보면서 의상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¹³⁾라는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드라마 속의 패션은 우리에게

<표 1> 스타일에 따른 'Sex & The City' 드라마 의상 분석

스타일	분류	패션소품	패턴	소재	아이템
		여러개의 목걸이	다양한 패턴 믹스	다양한 소재 매치	다양한 아이템 믹스
믹스 앤 매치 스타일(Mix & Match Style)					
		패션소품	패턴	아이템	
섹슈얼 스타일 (Sexual Style)		액세서리	레오파드	홀터넥	슬리브리스
					
		패션소품	패턴	아이템	
빈티지 스타일 (vintage Style)		모자	진주 액세서리	플로럴	원피스
					
		패션소품	패턴	소재	아이템
로맨틱 스타일 (Romantic Style)		코사지 응용	플로럴	시폰	원피스
					
		패션소품	패턴	소재	아이템

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며, 유행을 창조해 낼 것이다. 드라마의 현실감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패션들은 드라마를 좀더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패션 트렌드에 미치는 대중 매체의 힘이 큰 만큼 이제 국내 드라마 의상도 단순한 스타 마케팅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스타일리스트를 통해 드라마와 패션산업을 연계하고 패션흐름을 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디지털타임스, 호텔 여름패키지 '톡톡 튀네', 2003. 6. 20.
- 2) 한국경제신문, '옥탑방 패션' 패션폴 가타. 민소매터. 카고팬츠등 드라마 속 의상 불티, 2003. 7. 13.
- 3) 중앙일보, '세련·대담' 캐리 패션이 뜬다, 2002. 8. 1.
- 4) 원래는 인도나 아프리카 여성이 사용하는 팔찌, 장식링, 발목 장식을 뜻하나 현재는 금이나 은, 유리로 만든 같은 종류의 여성용 액세서리를 말한다. 또 팔찌나 네클리스에 붙은 늘어지는 장식을 말할 때도 있다.
- 5) 불꽃형의 스티치
- 6) 중앙일보, '세련·대담' 캐리 패션이 뜬다, 2002. 8. 1.
- 7) 횡경막이란 의미로 허리 부분의 한가운데가 노출된 짧은 상의
- 8) '오래되고 유서깊은'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으며, 원래 빈티지는 최고급 포도주인 빈티지 와인을 뜻하는 단어이다. 벵룩시장이나 보세가게에서 고른 오래된 듯한 낡은 옷들을 코디네이트해서 입는 스타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여행의 봄을 타고 2-3년 전부터 외국의 벵룩시장에서 구입한 옷들이 들어오고 보세가게가 많이 생기면서 단조로운 옷 입는 방식에 싫증을 느끼던 젊은층들이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옷 입기를 시도, 유행되었다. 손뜨개 아이템이나 구슬 백, 꽃무늬 프린트들이 빈티지룩을 살리는 요소이다.
- 9) 날실·씨실에 30~40번 면사를 사용한 평직으로, 표백·풀 먹이기와 광택가공을 한 것으로 유럽에서는 17세기 이후 인도에서 각종 면직물을 수입하여 이것을 보통 캘리코(calico)라고 하였는데, 명칭은 인도의 캘리컷항(港: 오늘날의 코지코드)에서 유래한다. 직물의 폭은 36인치·44인치 두 종류가 있다. 당시에는 옷감으로 사용되었지만, 옷감의 고급화에 따라 포플런에 밀려 커튼·테이블보·침구커버·에이프런·손수건·속옷용으로 쓰인다.
- 10) 먼지 등을 피하기 위해 착용하는 코트로 원래는 먼지

가 잘 붙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거나 장식적 코트로도 착용이 가능해 실크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 11) (복을 꼭 죄는) 목걸이
- 12) 갑작스럽게 인기를 얻지만 곧 사라지는 패션현상
- 13) 주간조선 2001. 11. 29(1898호).
- 14) 한국일보, 미리보는 '섹스&시티' 패션코드, 2003. 2. 27.
- 15) ELLE(Korea), Sex & the city 패션포인트, 2002. 10 월호.
- 16) Vouge(Korea), Style & the city, 2003. 5월호.
- 17) Sexandthecity, 자료검색일 2003. 8. 4.
자료출처 <http://www.hollywood.com>
- 18) HBO, 자료검색일 2003. 8. 6.
자료출처 <http://www.hbo.com>
- 19) Carriestyle, 자료검색일 2003. 8. 9.
자료출처 <http://carriestyle.tvheaven.com>
- 20) Shoesandthecity, 자료검색일 2003. 8. 11.
자료출처 <http://www.pure-boredom.com>
- 21) Sexcity, 자료검색일 2003. 8. 12.
자료출처 <http://www.jessica197.freereserve.co.uk>
- 22) Style, 자료검색일 2003. 8. 14.
자료출처 <http://estars.co.kr/knj>